“자연과 과학 연구로 건강한 아름다움 선사”

힘내라! 중소기업
㈜에이에이앤티

원자력연구원 기술 이전 받아
방사선 활용 새로운 원료 개발
한방재 높이고 화학물질 없애
해파리 콜라겐 상용화 개발중

AA&T 기동호 대표가 방사선을 활용해 개발한 원료로 제조한 화장품을 소개하고 있다.

AA&T 기초화장품 3종. /AA&T 제공

“자연과 과학의 힘을 빌려 건강한 삶과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방사선을 활용해 세균과 미생물을 박멸하고 화장품 원료물질 및 기능성 화장품 연구개발에 8년의 시간을 투자해 온 기업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광주 소재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기업 ㈜에이에이앤티(대표 기동호, 이하 AA&T).

AA&T는 과학 기술을 통해 특화된 성분을 연구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AA&T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특허기술인 ‘고에너지 빔 처리기술’을 활용한 복합추출물 ‘NHEBI-06’을 최초로 개발했다.

고 에너지 빔 처리기술은 물질을 이온화하거나 투과할 수 있는 에너지인 방사선을 활용한 기술이다. 방사선을 쬔 식물이 손상된 DNA를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물질로 특성변화하는 현상을 연구해 화장품 원료 물질로 개발한 것이다.

세계원료물질(ICID)에도 등록된 AA&T만의 독보적인 기술 ‘NHEBI-06’은 세균과 미생물 박멸에 탁월하다. 또한 한방물질성분 중화, 새로운 단백질로 특성변화시키는 등의 효과도 있어 AA&T가 개발한 화장품에는 고함량의 한방물질이 들어가 있다.

AA&T 기초화장품 3종에는 최대 84.03%의 한방물질이 함유돼 저자극으로 피부를 안정화시킨다.

보통 화장품은 여러 가지 원료를 잘 결합시키기 위한 계면활성제와 세균을 박멸하기 위한 방부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그러나 ‘NHEBI-06’을 활용한 AA&T 화장품은 계면활성제와 방부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아 안전하다.

AA&T는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며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AA&T는 방사선을 이용해 해파리로부터 콜라겐을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해파리로부터 방사선 조사 기술과 화학물질 처리 기술의 복합화한 방법을 통해 저비용·고수득률로 신가용성 콜라겐 및 아텔로 콜라겐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생체 기능성 신소재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파리로부터 분리된 콜라겐은 화장품 뿐만 아니라 식품, 의약품, 세포 배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기능성 물질로서 식품에는 가식성 케어싱이나 담체로 이용되며, 상처치유, 기억력 증강효과, 피부탄력, 세포의 접착교정 등의 효과가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처치가 어려운 해파리를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태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에너지 빔 처리에 의한 천연물 유래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제조 방법 등 총 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AA&T는 향후에도 자연을 보존하며 과학기술을 통해 개발한 새로운 원료로 화장품을 제조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기동호 대표는 “기존의 원료를 배합해 한 가지 화장품 제품을 개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료 자체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해왔다”며 “자연을 지키며 그 속에서 유효한 성분을 찾아내고 에너지를 활용해 개발한 제품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글·사진=김혜린 기자

광주은행-광산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5천만원 출연…21억 보증 지원

광주은행은 지난 22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박병규 광주시 광산구청장과 염규송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은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21억 원의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광산구 소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으로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한 대출 취급 후 1년 간은

광산구에서 4.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광주은행은 1년간 0%의 금리를 적용해 고객은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 염규송 부행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5월 광주·전남 금융기관 예금·대출 늘었다

저축성 예금·기업 대출 규모 상승
주담대 기준 가계대출 감소폭 축소

5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과 여신 증가규모가 전월대비 모두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통화금융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 1조 8,729억 원에서 2조 9,177억 원으로 약 55.7% 상승했다.

예금은행 수신은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1조 5,211억 원에서 2조 6,552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시장성수신은 CD를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2,084억 원에서 1,749억 원으로 축소됐다. 비은행예금기관 수신은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을 중심으로 3,518억 원에서 2,625억 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중 신협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하락했으며, 상호금융은 1,955억 원에서 2,145억 원으로 보통예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저축은행은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됐으며, 자산운용사는 MMF를 중심으로 감소 전환됐다. 신탁회사는 2,213억 원에서 1,932억 원으로 감소폭이 축소됐으며, 우체국 예금은 328억 원에서 419억 원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예금은행 여신 또한 722억 원에서 1조 3,554억 원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증가규모 확대로 2,101억 원에서 4,362억 원으로 뛰었으며, 가계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1,434억 원에서 685억 원으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은 54억 원에서 9,876억 원으로 늘었다. /오지현 기자

■ 로또 6/45(1025회)

당첨번호	8, 9, 20, 25, 29, 33 보너스 7
등위	당첨금액
1등	6,118,853,344원
2등	59,119,356원
3등	1,527,232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 연금복권720+(116회)

등위		당첨번호
1등	2조	641770
2등	각조	641770
3등	각조	41770
4등	각조	1770
5등	각조	770
6등	각조	70
7등	각조	0
보너스	각조	215051